

사회

■ 수능 성적표 받은 고3 교실



‘두근두근’ 내 성적은... 8일 광주 동신여고 3학년 교실에서 제 2010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 진 학생들의 표정이 다양하다. 담임교사는 “너희들 모두 정말 고생 많았다”며 학생들을 다독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생각대로...” “생각보다...” 희비 교차

상위권 촘촘해 하향안정지원 늘 듯  
교사들 변별력 낮아 진학지도 고심

“어, 왜 이렇게 낮지?” “휴~ 다행이다.”  
2010학년도 대입 수능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8일 광주 시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들간 희비가 엇갈렸다. 상위권 학생들은 가채점과 실제 성적에 큰 차이가 없어 안도하는 표정이었으나 중위권 학생 일부는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확인하고 낙심하는 표정이 눈에 띄었다.  
◇고3 교실 표정=8일 오전 광주 동신여고 3학년 1반 교실.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아쉬워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채점을 통해 자기 점수를 가능하고 있었던 탓에 큰 동요는 없었다.  
광주 동신여고 3학년 정모(18)양은 “혹시나 실수하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가채점했던 것과 실제 성적에 별 차이가 없어 다행”이라며 “수시지원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점수에 맞는 학과를 찾아 안정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모(18)양도 “점수는 예상했던 대로다. 간호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소신지원할 생각”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가채점을 잘못했는지 예상보다 점수가 떨어졌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교사들 ‘진학지도 고심’=광주 지역 진학교사들은 성적표가 배부되고 주요 입시기관이 분석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진학지도에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쉬운 수능 탓에 변별력이 낮아져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대광여고 마재일 진학부장장은 “평이한 수능시험 탓에 변별력이 떨어졌다. 특히 수리영역은 지난해 6, 9월에 치러진 모의고사보다 쉽게 출제돼 상위권이 워낙 촘촘하게 형성되는 바람에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이번 정시모집은 아무래도 하향안정 지원이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별로 수능점수 반

영비율이 다르고, 수능성적 상위권 학생 일부는 수시모집을 통해 빠져 나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원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진학교사들은 대체로 “수리가 쉬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손해를 좀 봤다.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이 된 외국어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정시모집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신여고 김현수 진학부장은 “과거 수험생들이 하향안정 지원이 대세를 이룰 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의 경쟁률이 유독 낮은 적이 있었다”며 “상위권 학생들은 정시에서 1~2곳 정도는 소신 지원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동 성폭력 피해 31% 급증

상담자 1,191명 중 아동 피해자 15%

광주 원스톱지원센터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1천191명 중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가 179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인근 주택(40%)나 피해자의 집(15%),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14%) 등 아동들에게 비교적 친근한 장소로 분석됐다. 가족과 이웃주민의 관심과 연대, 촘촘한 방법순찰 등이 이뤄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와 광주여성 희망포럼 법률보안치안분과위원회가 9일 광주시청에서 개최하는 ‘아동 성폭력 지역네트워크 및 역할방안 토론회’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환경화 광주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팀장은 ‘상담현장에서 본 성폭력 현실과 지역 네트워크 역할’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지난해 지원센터를 찾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76건으로 전년 58건보다 31%(18건)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이후 아동 성폭력 피해자 179명을 분석한 결과 발생시간은 학교 이후 또는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대인 정오~오후 6시가 8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오후 6시~밤 9시가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아동지킴이의 집’의 역할과 관련 채정희 광주드림 차장은 “지난해 초 도입된 아동지킴이의 집이 이 지역에 512곳 있으나, 삼점이나 문구점 업주 또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묘지 관리소장 ‘공백’

재공모에도 적격자 없어 ~ 30주년 행사 준비 차질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4급)의 임기가 8일로 끝이 났다. 그러나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자리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행사 준비 등 차질이 우려된다.  
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모집 공고를 통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장을 재공모했다. 이날 김세를 이룰 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의 경쟁률이 유독 낮은 적이 있었다”며 “상위권 학생들은 정시에서 1~2곳 정도는 소신 지원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5·18 민주항쟁에 대한 전문성·변화관리능력·능통한 외국어 실력 등을 갖춘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는 게 국가보훈처가 밝힌 탈락 이유다.  
공모가 또 다시 무산되고 현 소장의 임기가 이 날로 끝남에 따라 관리소장 자리는 공식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 차질을 우려해 관련법에 따라 내부직원을 소장으로 발령내는 안과 3차 공모를 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음주 후 속 잡자던 50대 숨져

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권모(55)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안모(5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전날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간 권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권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친 카드 훔쳐 8백만원 인출 사용

○광주북부경찰은 8일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수백 만원을 인출한 김모(2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A(23)씨 집 안방에서 A씨의 현금카드를 훔친 뒤 광주 모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회에 걸쳐 현금 800여만 원을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  
○조사결과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돼 있던 김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A씨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친 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돈을 인출했는데, 경찰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현금카드를 훔쳤다”고 진술.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항만청 항로 변칙 개설 무효”

광주지법 판결

신규 면허 대상인 새 항로를 ‘사업계획 변경인가’만으로 변칙 개설해준 목포해양항만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관사 김병하)는 8일 P해운이 목포항만청을 상대로 낸 ‘해상여객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안도농

협에 대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항로는 기존 항로에 포함되지 않은 항구를 운행하는 것이어서 항로가 새로 개설된 것인데도, 항만청이 신규 면허가 아닌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 짚김배상 판결에 무더기 항소

소송인단 모집도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던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무더기 항소했다.  
8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S법무법인을 통해 ‘광주공항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다른 변호사 측도 광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을 대신해 조만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두 대

리인 측은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며, 예상인원은 1심 때(3만8천758명)보다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달 11일 강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일부 원고에게 4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소음도 85데를(WECPNL·항공기 소음 단위)인근 곳을 배상 하한선으로 분류해 소송 주민의 90% 수준인 3만4천여명의 청구가 기각됐다. 또 재판부가 책정한 총 배상액은 주민 청구액(761억원)의 5.4% 수준에 그쳐 사실상 주민들의 패소판결로 받아들여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장수 바다장어' (Jangsu Sea Eel)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eel, a chef, and promotional text including '100% 자연산'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명일 매력한우' (Myeongil Maerie Hanwoo) featuring images of beef, a chef, and promotional text including '맛있는 직판장' and contact information.